

오순절 후 스물두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2ND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0 장 “여호와 하나님” (새 14)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3 번 마태복음(Matthew) 6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 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레위기(Leviticus) 25:1-13	양용일 집사
찬 양 Anthem	“크신 사랑”	찬양대
설 교 Sermon	“복음이 드러나는 정의” (Living Justice)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오직 예수 뿐이네”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88 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새 42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셨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세상의 가치와 쉽게 타협하며,

우리 안에 숨겨진 죄성을 여과없이 드러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거짓된 말과 악한 행실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다시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거짓없는 진실한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5:14)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찌라.” (한글개역 레25:13)

“In this Year of Jubilee everyone is to return to his own property.”
(NIV Leviticus 25:1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0/24 (주일)	10/25 (월)	10/26 (화)	10/27 (수)	10/28 (목)	10/29 (금)	10/30 (토)
왕하5	왕하6	왕하7	왕하8	왕하9	왕하10	왕하11,12	
딤후2	딤후3	딤후4	딤후5	딤후6	딤후1	딤후2	
단9	단10	단11	단12	호1	호2	호3,4	
시117,118	시119:1-24	시119:25-48	시119:49-72	시119:73-96	시119:97-120	시119:121-144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0/27 오후7:30)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 (엡삿3:12-23)
토요 새벽기도회 (10/30 오전6:30)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시57:1-11)

지난 주일(10/17) 말씀

전도의 8가지 습관 (4) – “전도를 위한 기도”(골 4:2-6)

‘전도(Evangelism)’는 복되고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마치) 감추어진 비밀(Mystery)과 같아서, 깨닫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결코 알 수가 없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그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활주로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를 위한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1)첫째, 우리는 힘써서 기도하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골4:2), 2)둘째, 우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골4:3), 3)셋째, 우리는 소금을 고루게 하듯 맛을 내는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골4:6)는 사실입니다. “좋은 기도란 기도할 때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다”는 말처럼, 진정성이 녹아있는 기도, 그리고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부단히 애쓰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통)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으로, 그리고 기도에 걸맞는 삶으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진정 복음 증거를 위한 진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